

광주·전남 통합 마중물 광역협력사업 발굴한다

지역균형뉴딜 정책 공동 대응 내달 시·도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조단위 대규모 프로젝트 논의

광주시와 전남도가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뉴딜 정책에 적극 대응, 국가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초광역협력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광역기반 시설(SOC), 지역균형뉴딜사업, 미래전략산업 등과 관련 조단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 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시, 전남도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의 내년도 상생 의제에 '초광역협력사업 발굴'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실무회의를 마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12월 중순께 열릴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추진 사업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일 단계적 행정 통합 논의에 합의한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협력을 상징할 수 있는 초광역협력사업 추진에 상호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이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초광역협력사업으로 전남도가 제안한 '광주·전남·전북 웰에이징 휴먼헬스케어벨트 조성사업'(사업비 8000억원, 향후 2조로 상향), '광주·전남 영산강유역문화권 개발사업'(1.2조), '광주·전남에 그라티(Agri-Tech)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5000억원) 등 3개 사업, 광주시가 제안한 '광주·부산·경기 초연결 AI헬스케어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1800억원) 등을 신청한 바 있다.

연구원은 이 외에도 광주시와 인근 전남 사군, 전남 동부권(여수·순천·광양) 등을 연계하는 광역철도망 및 도로망과 함께 자동차, 철강, 에너지, 화학 등 지역 기간산업 간 융복합 사업 등을 찾아 광주시와 전남도에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정통합을 추진중인 대구·경북, 경제협력공동체인 메가시티를 지향하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통합 논의를 막 시작한 충청권 등도 초광역협력 사업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부·울·경은 초광역협력사업으로 부전-마산 북선전철 전동열차 도입, 동남권 메가시티 급행철도(MTX) 건설, 동남권(마산-부전-송정) 전동열차 운행,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기·종착역(KTX 환승역) 건설, 부산 금곡-양산 호포간 광역도로 건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산하 부산·울산권 지역본부 설치 등을 건의했다.

충청권은 초광역협력사업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도 제주 해양경제특구 조성고 남해안 해상풍력 클러스터 등의 남해안벨트 연계고 남북 평택크루즈 운영 사업 등 초광역협력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도민들에게 광주·전남이 상생협력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해 통합의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며 "각 분야별 구체적인 사업들을 발굴해 공모에 참여하거나 정부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에이스 페어' 개막 국내 최대 규모 문화콘텐츠 종합 전시회인 '2020 광주 에이스 페어(Asia Content & Entertainment Fair)'가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다. 283개사가 335개 부스를 마련해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뉴 콘텐츠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8일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GGM 박광태 대표·부사장 등 증인 채택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방만 운영·채용 과정 따질 것"

광주시의회가 '방만 운영'의 책임을 물겠다며 시작한 배정찬 전 광주그린카진흥원 원장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5일 오전 그린카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배 전 원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오후에는 광주그린카진흥원이 1대 주주로 참여해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을 짓는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박광태 대표와 현대자동차 출신 박광식 부사장 증인 채택 건을 의결했다. 또 박 대표와 박 부사장에겐 최근 배 전 원장의 후임으로 현대차 출신인 김덕모(68) 신임 원장을 채용한 배경, GGM의 지역업체 확대 문제 등을 따질 계획이다. 증인 출석 요구를 받으면 3일 이내 출석 여부를 답해야 한다. 공직자는 출석 불응 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지만, 민간인의 출

석 의무는 없다.

배 전 원장, 박 대표, 박 부사장의 경우에는 출석 의무와 관련 논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산건위는 11일 이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그린카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진행된 감사에는 사직한 배 전 원장이 아닌 후임인 김덕모 신임 원장이 출석해 "그린카 진흥원이 광주에 있는 지도 몰랐다"는 발언 등을 해 자 격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장재석 의원은 "시인 형제로 그린카진흥원이 GGM에 투자한 건데, 김덕모 원장이 같은 현대차 출신인 박광식 GGM 부사장과 가깝다 보니 현대차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갈 거라는 우려가 있다"며 "소신 있게 '광주형 일자리' 상생 취지에 맞게 역할을 하지 못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김 원장이 그린카진흥원을 잘 모르고 있었고 누군가의 추천으로 원장 후보자 공모에 신청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 김 원장은 의원들이 신청 이유를 묻자 "주석에 집에 있는데 (그린카진흥원) 여직원이 전화가 왔다. 여직원

이 (나에 대해) 네이버에서 검색해보고 생년월일을 물어 답했다. 여러분을 추천받았는데 취합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이 지나고 10월 초에 관련 언론 기사를 보고 공모한다는 게 있어 그걸 보고 (그린카진흥원) 사이트에 들어갔다. 팝업 창에 있어서 공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린카진흥원이 광주에 있다는 것도 몰랐다"며 "광주시 쪽에서 자동차 관련된 분야, 필요한 분을 모니터링했는지..."라고 말했다.

또 "정확히는 모르는데 (누군가) 추천한 게 아닌가 느낌이 있다"며 현대차나 광주시의 추천으로 공모에 신청하게 됐음을 내비쳤다.

한편 자동차산업과는 지난 7월 그린카진흥원의 운영 전환을 점검하고 신분상 조치 6건, 환상 2건, 개선 14건 등을 요구했으나, 진흥원은 지난 8월 배 전 원장에 대해서는 조치하지 않고 일부 직원에게 견책 결정만 하며 시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나 시 감사위원회는 특정 감사를 벌였고 배 전 원장은 9월 사직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남도 숲길' 걸으며 코로나 시름 달래세요

전남도 '걷고 싶은...' 12곳 선정 숲길 정보 담긴 홍보물 제작·배포

전남도는 수려한 산림자원에 조성된 숲길을 걸으며 힐링과 치유할 수 있는 '걷고 싶은 전남 숲길' 12개소를 선정했다. 이번 숲길 선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도민과 관광객에게 남도의 문화·관광·역사·산림자원 등이 조화된 힐링·치유 숲길을 적극 홍보하고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공모에 접수된 33개소 중 설문조사, 전문가 현장심사를 거쳐 계절별 3개소씩 총 12개소를 선정했다.

계절별로 ▲봄은 구례 '지리산 밤재부터 현천마을길 구간', 목포 '유달산 천년숲길', 곡성 '섬진강 돌레길' ▲여름은 보성 '계암산 더늠길', 영광 '물무산 돌레길', 목포 '고하도 해변 숲길' ▲가을은 담양 '추월산 수행자길', 화순 '너릿재 옛길', 영암 '월출산 기암뒀길' ▲겨울은 진도 '점찰산 난대숲길', 광양 '달뜨는 길', 고흥 '팔영산 치유숲길' 등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으뜸 숲길 6개소도 선정돼 최우수상은 진도 '점찰산 난대숲길'이 차지했다. 우수상 2개소는 담양 '추월산 수행자길', 화순 '너릿재 옛길'이, 장려상 3개소는 영암 '월출산 기암 뒀길', 목포 '고하도 해변숲길', 구례 '지리산 밤재에서 현천마을길 구간'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진도 '점찰산 난대숲길'은 주변 운림산방, 쌍계사, 소치미술관 등이 위치한 산림자원과 함께 역사·관광·문화자원이 풍부하다.

특히 전국에서 보기 드문 50여종의 난대수종이 보존돼 있어 지난 1962년 천연기념물 제107호로 지정됐다. 천혜의 경관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등산로도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난대산림욕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다.

전남도는 12개 숲길에 대한 정보가 담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숲길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지역에는 등산로, 돌레길 등 숲길 4181km가 조성돼 운영중이며, 숲길을 다닌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 127km 구간에 95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노면정비, 편의시설 설치, 보수, 풀베기 등 사업이 추진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

참여자치21 "안하무인 GGM 견제 장치 마련해야"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는 (주)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시민의 견제·감시를 거부하고, 지역업체와의 상생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2020년 11월 4일자 1면)과 관련, 광주 대표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견제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21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GGM은 시민대표격인 광주시의회의 자료제출 조차 거부했

다. 광주의 시민사회는 이를 상생 철학을 저버린 무도함일 뿐만 아니라 어떤 감시와 견제도 받지 않겠다는 오만함을 드러낸 폭거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GGM은 광주시민과 광주시가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탄생시킨 시민이 주인인 회사"라며 "GGM은 부사장을 현대차 임원 출신으로 임명 한 데 이어 1대 주주인 그린카진흥원장까지 현대차 임원 출신 인사로 선임했다. 시 산하인 그린카

진흥원은 1대 주주의 자격으로 GGM에 회계 열람권과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곳의 원장을 현대차 임원 출신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나마 가지고 있는 부분적인 감시와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신임 원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참여자치21은 또 "GGM이 구내식당,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등에 지역 업체의 참여를 배제하고 현대 계열사에 맡기려는 의욕이 있다"며 "특정 재벌 기업의 이익 추구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SGI서울보증 | AIG | 하나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KOREAN | BNP PARIBAS CARDIF | CHUBB | Carrot